

# 주일 예배 순서

- 성령강림 후 제8주 -

- 조용한 기도(Silent Prayer) ..... 시편 111:1-10 ..... 다함께
- 찬 송(Opening Hymn) ..... 55장 ..... 다함께
- 교독문(Responsive Reading) ..... 48번 ..... 다함께
- 공동기도(Prayer) ..... 다함께

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.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였고,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. 무엇을 하든지,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과 진리를 좇게 하옵소서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.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. 또한, 그 열매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이것이 교회가,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.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- 사도신경(Apostles Creed) .....다함께
- 성경봉독(Scripture) ..... 말라기 1:6-14 ..... 인도자
- 말씀증언(Sermon) ..... 이송원 목사

## “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”

- 봉 헌(offering) ..... 1장 ..... 다함께
- 환영과 소식(Welcome/Announcements) ..... 인도자
- 찬 송(Hymn) ..... 362장 ..... 다함께
- 축도(Benediction) ..... 이송원 목사

# 교회 소식

1.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예배 후에 피자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.
2.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카카오 라이브톡을 통해 계신 곳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교회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기도제목>
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
-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
-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
-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.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
-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
-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
  - 박현숙 성도님(좌골신경통 및 빈맥증) / 서희숙권사님(항암치료중)

<말씀묵상> 말라기 1:6-10

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 들은 그 아버를,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뎌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뎌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 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 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 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 하며 저는 것,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휟히 여기 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 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 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

1.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?(6-8절)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니까?

2.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?(9-10절)

❖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.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더 깊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과 왕이 되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. 애굽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고, 그 땅에서 강성케 하 셴습니다. 그러나 그 땅의 부요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영적,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. 결국 나라는 하나님의 심 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은 끝나지 않았고 식지 않았습니다.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거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. 처음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나 그도 잠시,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다시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제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 다. 가장 거룩하고 순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. 인간의 권위자에게도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버젓이 행하고 나서도, 도리어 그들은 뻔뻔 하게 반문합니다. “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?”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 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해지는 가장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하나님은 이후로 400면 동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. 내 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격도 감사도 없고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지만 않다면, 나 역시 마음이 강박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 입니다.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?

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

#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



담임목사(Pastor) 이송원 목사(Rev. Songwon Lee)  
반 주 자(Pianist) 기길숙 성도

*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*

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, Parma, OH 44130

☎ 교회: (440)845-1728

E-mail : hanmadang@sbcglobal.net

웹사이트 http://www.hanmadang.org